

노스트라다무스 '1999년 7월 종말론'

컴퓨터 실험 "대재앙 없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대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예언한 7월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있다. 그의 '1999년의 일곱번째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라는 예언을 두고 해석자들은 이날을 7월4일, 18일, 24일, 8월11일 등으로 얘기한 바 있다. 그러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따른 종말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아직 그의 예언이 들어맞을 몇 번의 기회가 남았다고 믿는 것일까.

6월 창간된 천문정보지 '별과 우주' 창간호(7월호)는 시사기획물 '우리가 노스트라다무스'에서 대재앙설의 근거가 되는 '그랜드 크로스(행성 십자배열)'나 '그랜드 얼라인먼트(행성 일직배열)' 현상이 올 7월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7~8월의 행성배열을 컴퓨터로 모사(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종말론이 허구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했다.

▲그랜드 크로스·얼라인먼트=그랜드 크로스란 모든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십자가 모양으로 배치될 것이라는 예언에 따라 붙여진 이름. 그랜드 얼라인먼트는 태양과 지구와 달, 행성들이 일직선을 이루는 것으로 오는 2000년 5월5일쯤 일어난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종말론=이 두 경우 모두 각 행성과 지구의 밀고 당기는

힘에 영향을 거쳐 천체자변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은 그가 말년에 편지 형식으로 남긴 '세세기(Centuries)'라는 예언서에 담겨있다.

▲천체자변은 일어나는가=천문우주기획은 오는 7월31일의 행성 배치도를 컴퓨터로 모사한 결과 그같은 행성배치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모든 행성이 지구에 미치는 인력을 합해도 달의 1.7%밖에 되지 않아 지구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종말론을 비웃는 사람들=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가 3797년까지 이어지고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노스트라다무스의 고향인 프랑스 남부의 프로방스에서 전세계 관광객과 취객들을 상대로 돈을 벌며 즐

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묻는다. 지구종말론의 비판서인 <에코 스캠(Eco Scam)>은 지금까지 나온 종말론 중 들어맞은 것은 하나도 없으며, 과학자-언론-환경단체가 종말론을 부풀려 장사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종말론의 실제=종말론은 서양의 직선적 역사관이 남은 현상이다. 동아시아 전통세계에서는 '인류 멸망'이라는 주제를 두고 사회가 심리적 공황에 빠지는 일은 없었다. <종말론의 역사>를 쓴 유리 루빈스키는 "불안한 사회일수록 종말론에 빠지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한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불교의 눈

불교는 정법에 의해 세상을 보고, 근본적으로 종말론과 같은 예언은 말하지도, 믿지도 말라고 가르친다. 부처님께서는 "나는 모든 비구들에게 신통을 보이려고 가르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잡아함경). 수화문화연구소장 김용운 박사(전 한양대 교수)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종말론이 시작과 끝이 있다는 기독교의 종말론에 기초하고

"정법에 의해 세상을 보라"

있으며, 이것은 모든 것이 연기한다는 불교적 입장과는 매우 상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불교는 시작과 끝이 없는 연기법에 따라 모든 것이 이뤄지며, 따라서 종말론과 같은 것은 믿음직한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종말론은 논리에 따라 결과가 나온다는 과학의 논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南北화해-협력 촉구 송월주 전 조계종총무원장, 김수환 추기경, 강원룡 크리스천이카데미 이사장 등 시민사회단체·종교계 대표들은 지난날 29일 오후 서울 흥사단 강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촉구했다.

자외선 종양·노화 유발

햇빛은 피부의 적...노출 피해야

피부노출이 쉬운 여름철. 하지만 햇빛이 '피부의 적'이라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자외선 가운데서도 B파는 피부를 그을리게 하고 때로는 '상피성암종'을 일으키지만 보기 흉한 흔적만 남길 뿐 치명적이진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의 연구는 C파와 마찬가지로 악성종양인 흑색종을 유발한다고 보고했다.

게다가 지금까지 건강자외선이라 알려져 왔던 A파 역시 종양유전자와 면역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A파는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조기피부노화, 반점, 주름 등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여름철에 주로 하는 인공성태는 돈을 주고 A파를 피는 셈이다.

한국인 1천명중 33명 매일 항생제 복용

지난달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97년도 병·의원과 약국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우리나라 의약품 사용실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33명이 매일 항생제를 복용하는 등 항생제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료가관에서 불필요하게 항생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32.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항생제를 매일 복용하는 사람 수를 나타내는 일일사용량 기준단위(DDD)는 33.2%로 조사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DDD가 21.3인 점을 감안할 때 우려할만한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의료가관에서 항생제를 제대로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항생제사용적합률은 평균 67.4%에 불과해 항생제가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도

힘없는 백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구제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 임무를 역설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언이 문득 생각난다. 불건왕조에 대한 개혁을 부르짖다 18년간의 유배 생활 속에서 집필한 명저 <목민심서>는 돌아가신 지 13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널리 읽히고 있다. 청빈한 조선시대 문필가요 실학자인 선생은 참 뜻을 아는 다인(茶人)으로 일흔 다섯 해를 이 땅에 머물면서 진정 나라의 소중함을 알고 호국의 정신으로 보람있게 살다 가신 분이다.

특히 <목민심서>는 오늘날 공직자 누구나 익히고 실천해야 할 지침서이다. 이 시대 세상 그리운 마음에 이 시간 남의 나라에서나 일어나는 듯한 사건들로 울분과 부끄러움 유열이 채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또 한 번 경악과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수렁 장 어린이 참사 사건을 본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무척피워버린 스무 세 송이 꽃봉오리들의 비명은 우리의 가슴에 푸른 피를 토하게 한다. 이 또한 말은 바 자신의 일에 소홀하지만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참극이자 공직자들의 불성실을 탓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다.

공직자의 윤리가 흔들리면 나라의 기강과 민족의 정기가 흐려져 사회의 뿌리인 도덕이 무너지는 이 엄청난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텐데 어떻게 우리는 이런 사실을 끝까지 잊고 사는 것인지 모르겠다. 공직자들 집 김치독에서 돈다발이 쏟아져 나와 아이들 실색케 하더니, 장관 부인 옷로비 의혹사건으로 온 나라를 벌집 쑤셔놓은 꼴로 만들어 놓고, 이것도 부족해 후원금을 받은 장관이 물러나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강요당한 국민들은 더 이상 허탈해질 것도 없는 상태에 빠졌다. 어떤 명목이나 명분에서든 이제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음을 공직자들은 아직도 잊고 사는 것인가.

90만 공직자들은 진심으로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쯤 다시 자

신의 위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기업이나 자영업자 기술자 근로자 기타 직업인들이야 생산량이나 시간에 대한 수당만 받으면 되지만 공직자들은 그렇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공무원의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범박된 세금으로 나라의 녹을 먹는 공복이기 때문에 주인인 국민들의 시각이나 요구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되는 의무를 지고 있다.

얼마전 정치와는 정서가 맞지 않는 사람을 장관의 자리에 앉혀 오히려 훌륭한 예술인 한 사람을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불명예 안고 사임하는 모습에서 오히려 측은한 마음이 든 것은 비단 필자의 생각일까. 임명권자나 임명받은 사람 모두가 제 몫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술은 예술가가 사임자가 정치가 정치가 해야 하는 것이다. 어느 한 분야에 꼭 필요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깊은 안목으로 양심을 으뜸으로 치는 인사행정을 폄하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리 없다.

신선한 나무가 아니면 내려앉지 않고 고결한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고 가장 순수한 샘물만 마시는 불사조 정신에 걸맞은 정신유산으로 남긴 다산 선생의 덕목정행이 이루어질 때 이 땅의 국민들은 모든 공직자들을 믿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산대사의 '부자굴 부자고(不自屈 不自高)'라는 말씀이 있다. 스스로 낮추지도 높이지도 말라는 가르침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평생 가슴에 새겨두어야 할 명언이라는 생각이 든다.

김치독 속에 든 돈 다발 묶음은 감사의 편지로 가득 차고 화병 속에 든 지전의 눈물은 고마운 단어 나열된 안개꽃으로 피고,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서류 가득 찬 007가방을 들고 연못처럼 떠오르는 공직자들의 모습은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강문숙 (시인)

안전불감증에 희생된 아이들 책임감 되살리는 고귀한 희생되길

생활정보

여권발급 신청당일 가능
경철청은 이달부터 신원 조회에 걸려서유가 없는 사람은 신청 당일 여권을 발급해줄 것으로 했다. 지금까지는 여권발급을 위한 신원 조회 때 현재의 이름과 출생연도만 입력, 동명이인 중 수배자가 있을 경우 정밀조회를 하느라 발급이 지연되었으나, 이제부터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입력해 신청 당일 여권발급이 가능해졌다.

화장하면 10만원 지원
경기 의정부시는 화장을 하거나 가족단위의 납골묘지를 설치할 경우 유족에게 10만~20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시 거주민에 한해 지원하며, 화장의 경우 10만원, 가족단위의 납골묘지를 설치할 때에는 20만원을 지급한다.

견인료 신용카드로 결제
서울시는 이달부터 주차 위반 등으로 견인된 차를 찾아가면서 내는 견인료와 보관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 시설관리공단은 최근 국민·외환 등 카드사와 계약을 맺었다.

소액 민사사건 심비변호
청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민사사건을 심비로 전담해주는 변호인단이 구성돼 서민층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변호사 13명은 지난달말 소액사건 전담 변호인단을 출범시키고 서울지법 본원과 동, 서, 남, 북부 4개 지원에서 활동한다. 이들은 수임료를 기존의 3분의 1 수준인 100만원 안팎으로 정해 '심비변호'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02)3476-7000

카페인 방사는 피해 줄여
카페인이 방사능 피해를 막는다는 새로운 연구가 나왔다. 인도 원자연구소의 조지박사팀은 카페인을 주입시킨 쥐와 그렇지 않은 쥐에 치사량의 방사능을 가한 결과 카페인을 주입시킨 쥐만 생존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조지박사는 "커피의 작용을 완전히 이해한다면 방사선을 이용한 암치료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청소년 박물관교실
국립중앙박물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99여름 어린이·청소년 박물관교실'을 개설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박물관 공부와 문화·역사강의, 전시실 학습, 유적답사 등이다.

어린이교실은 초등학교 4~6학년생 600명을 대상으로 7월19일부터 8월4일까지 5일씩 3차례 진행되며, 청소년교실은 중학교 전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8월9일부터 13일까지 운영된다. (02)398-5081

불교 경전 번역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알기 쉬운 한문해석법

한문의 기초부터 허사에 이르기까지 한문해석을 위한 한문 문장의 구조와 문법을 총정리한 초보자를 위한 한문입문서, <반야심경>을 문법적으로 적용하여 국내 최초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번역하였다.

심재동 저/신국판/383쪽/12,000원

무문 관으로 배우는 선어록 읽는 법

선어록은 대부분 당송시대의 언어로 쓰여졌으며 그것도 선종 특유의 정신이 배어 있는 직설적 어법이 대부분이다. 이 책은 당송시대의 문화와 관습, 생활 등을 토대로 선어록 해석의 새로운 관점과 방법을 제공한다.

혜원 역/신국판양장/376쪽/15,000원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1가 51 타운힐빌딩 3층 3672-7181~5 팩스 3672-7186 **운 주 사**

통신판매 이계 문화 한 통화로 집이나 사찰에서 편안히 책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1999년 여름호

인터넷 불교/21세기 불교정보화를 위한 과제 현재 개설, 운용되고 있는 인터넷 불교사이트를 평가한다 -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 통도사, 송광사 등이 뛰어나다

인문포커스 / 한국불교의 거목들 찾아서 - 학술원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기획. 근·현대 재가불자들 중 각 분야별로 불교활동을 한지 오래된 선각자의 삶을 조명하여 재가불교운동의 당위성과 모범적인 불자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 역사와 문화의 만남, 황의선 선생 - 한국 도서편찬의 아버지, 박봉식 선생

우리시대의 匠人 ②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젊은 장인들을 찾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뒷방을 일구어가는 젊은 장인들의 숨결을 느껴보는 시리즈. - 북 장인(甄匠), 임선민 씨

연재소설 / 「관세음보살행경」 평역 「산은 산, 물은 물, 「만행」 등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소설가 정찬주 선생이 소설적인 구성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소설. 관세음보살 이야기 (1)

불교관계는 총합서인 1998. 12 - 1999. 6 불교 관계 각종 자료(단행본, 논문, 학회논문)를 목록으로 정리.

불교와 문화 구독 및 광고 문의 02-719-1855 (주) 121-050 서울 미포구 미포동 140 대보빌딩 불교와 문화 PC통신ID 하이텔/천리안/나우누리 kbpf, E-mail kbpf@chollian.net